

도로는 공공시설... 자본 변경 땐 협의해야

■ 제2순환도 행정심판 의미와 전망

중도해지·소송 '법정공방' 불가피

'세금 먹는 하마'로 논란을 빚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0일 열린 행정심판을 통해 광주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제2순환도로 운영자인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패한 민간사업자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제2순환도로의 분쟁이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 배경=광주시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간 갈등이 시작된 데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부추기는 민간사업자의 자본 구조 임의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이 쟁점이 됐다.

맥쿼리 인프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측은 지난 2003년 3월 1차 자본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켰으며, 지난 2004년 10월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순위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1675억2500만원을 벌어들인 1947억5000만원을 대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상사용기간 종료 연도인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이자부담이 예상돼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 측에 자본구조의 원상회

복과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출자자 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사업시설 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감독명령 통지를 했다.

그 배경에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시 재정절감 추정액이 1224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협약변경과 상사중재 등을 요구한 것도 작용했다.

민간사업자는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애초 협약조건에 자본구조 변경시 승인받아야 하는 조항이 없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 기각 결정 의미=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제2순환도로 운영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정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과 관련해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대주주인 (주)맥쿼리인프라에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2순환도로는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성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자본구조 변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맥쿼리의 선택은=행정

도로 등 건설 운영 국내 최대규모 펀드회사

■ 맥쿼리 인프라는?

정식 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다. 도로와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또는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펀드회사다.

지난 2002년 12월 설립됐으며, 집합투자사업인 맥쿼리자산운용(주)가 82.4% 그리고 국내투자자가 1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정산터널, 마창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인천대교, 부산 신항만 2-3단계 등에 투자하고 있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지분 100% 그리고 3-1구간 운영자인 광주순환의 지분 75%를 갖고 있다.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분쟁일지

- ▲2003.3.28 민간사업자, 1차 자본구조 변경
- ▲2004.10.24 민간사업자, 2차 자본구조 변경
- ▲2011.10.4 광주시, 민간사업자에 감독명령(자본구조 원상회복) 통지
- ▲2011.11.25 민간사업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2011.12.12 광주시, 중앙행정심판위에 답변서 제출
- ▲2012.6.19 중앙행정심판위, 서면심리(결정 보류)
- ▲2012.7.10 중앙행정심판위, 구술심리(기각 결정)

심판에서 승리한 광주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지분 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한 뒤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2순환도로를 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와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 통지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예정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후 90여 일의 중도해지 사유 처리기간과 40여 일 간의 청문절차,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겸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정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경우 광주시가 자체 매입하려는 계획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광주시의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제2순환도로 1구간 내 소태C 전경.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광주시가 이 구간을 매입,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부산·대구도 맥쿼리에 '등골'

지자체마다 수천억 보전금 갖기 골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0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도 시철도 9호선 1단계, 대구 제4순환도로, 경남 마창대교 등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실시한 여타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칫밥을 먹어가고 있는 적자 보전금에 허리가 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재협상 및 사업권 매입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시설의 사업권 매입과 수익률 재협상을 바랐지만, 관련 민자사업자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 측은 거부로 속 앓이를 하고 있었다.

대구시도 맥쿼리인프라 지분이 85%인 대구 제4순환도로 범민자도로를 놓고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통행량을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지난 2002년 개통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087억 원을 보전해준데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24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재동을 걸고 시민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해 6월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하면 법정다툼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도 맥쿼리인프라가 100%의 지분이 있는 경남 마창대교의 재정보전액이 해마다 90여 억을 넘고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와 재협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남도의 경우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감안해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재협상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맥쿼리인프라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인수한 부산 수정산 터널(2002년 개통)도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져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맥쿼리 특혜 의혹' 단단히 버리는 국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조카가 회사 대표이사 맡아

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한 주요 민자 사업에서 맥쿼리사(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장남이 맥쿼리 산하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었다.

여기에 광주는 물론 서울, 대구, 부산 등 맥쿼리사의 자본 투자가 이뤄

졌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회 개원 조건으로 맥쿼리사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 민주통합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와 국정감사를 버리고 있다.

또한, 여당에서도 맥쿼리사의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적극적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RAGON LAKE COUNTRY CLUB www.dragonlake.co.kr

당신만의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드라곤레이크 컨트리클럽

생활까지 품격있는 최고의 컨트리클럽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드라곤레이크CC

최고를 위한 신한레저만의 고품격 서비스

최/고/의/위/치

천혜의 피톤치드가 풍부한 전록 남원시 교룡산 기슭에 위치

명/품/골/프/코/스/설/계

현재 운영중인 410개 골프장 중 76개 골프장을 설계한 필드컨설턴트 김명길 회장이 설계

가/까/워/진/접/근/성

원주-순천간 고속도로와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 및 북남원C가 개통되어 이동시간단축

다/양/한/부/대/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휴식공간과 기업 및 단체 연수 공간으로 활용

DRAGON LAKE CC

대표전화 : 063. 630-3000-3 / 예약실 : 063. 630-3004-5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율리 산 142-1번지